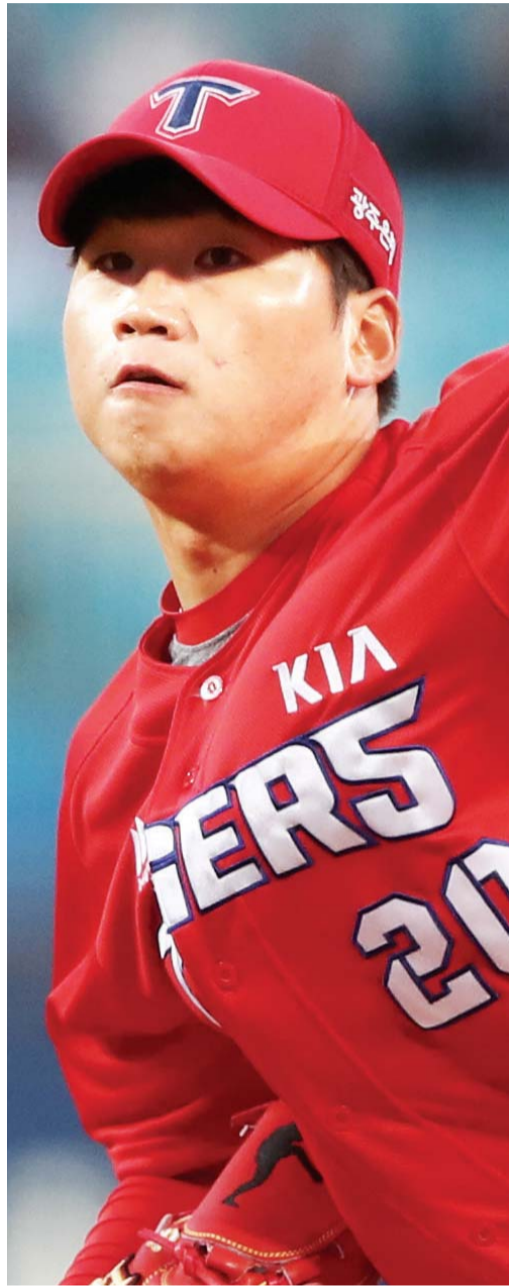


마운드 새바람...팬들은 신바람



김기훈



양승철



홍건희



하준영



이준영



하준영·임기준 활약...KIA '좌완 불펜' 고민 해결
양승철, 큰 키로 힘 있는 피칭...데뷔전서 승리
깜짝 선발 홍건희 기대 밖 호투...마운드 경쟁시대

'잇몸 야구'로 타석 체질 강화에 성공한 '호랑이 군단'의 시선이 이제 마운드로 향한다.
KIA 타이거즈의 2019시즌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장점과 약점이 뒤바뀌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엔트리와 라인업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올 시즌 KIA의 타선은 장점으로 분류됐다. 팀 타선을 이끌어왔던 베테랑 타자들이 그대로 새 시즌을 준비하면서 전력 누수가 없었다. 내야의 중심인 김선빈과 안치홍 '키스톤 콤비'의 'FA 효과'도 기대됐다.

하지만 막상 무릎을 열어본 시즌 모습은 예상을 한참 비껴갔다.
베테랑들의 계속된 부진에 답답한 공격 흐름이 이어졌고 이는 패배로 연결됐다. 또 김주찬과 김선빈은 일찍 재활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믿었던 타자들의 부진 속 오히려 약점으로 꼽히던 '백업 야수진'이 패기 넘치는 플레이로 위기의 팀을 끌고 가는 모습이다.
신예 선수들은 집중력 있는 승부로 상대의 허를 찌르며 귀한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팬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에도 이들의 플레이를 위한

으로 삼고 있다.
타석에 분 변화의 바람이 마운드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시즌 엔트리에 있던 임창용, 윤석민, 김세현이 빠져지만 이들의 빈틈은 보이지 않는다. 불펜의 무게감은 떨어지지만 '젊은 투수진'은 경험을 쌓아가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변화의 마운드 전면에는 고졸 2년 차 하준영이 있었다. 하준영은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필승조로 고속 승진했다. 또 다른 좌완 이준영과 함께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해줬던 임기준까지 마운드에 가세하면서, KIA는 '좌완 불펜진'이라는 오랜 고민을 풀 실마리를 찾았다.
양승철이라는 새로운 신인도 등장했다.
대학 재학 중 군대를 다녀온 '늦깎이 신인' 양승철은 193cm 큰 키를 활용한 힘 있는 피칭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프로 데뷔전이었던 지난 13일 SK전에서 2.1이닝 2피안타 무실점의 강렬한 신고식을 치렀다. 그리고 이날 경기가 9회 2사 만루에서 타진 대타 한승택의 역전 만루 홈런으로 6-4, KIA의 승리로 끝나면서 양승철은 데뷔전에서 승리까지 거머쥐었다.
마침내 마무리 자리를 차지한 김윤동도 착실하게 제 역할을 해주면서 불펜진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부상과 부진이 겹친 선발진에서도 '잇몸'들의 경쟁이 전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일단 좌완 김기훈은 기복은 있지만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선발진 한자리를 채우고 있다.
'선발 후보'였던 한승혁이 내전군 부상으로 재활군에 머물고 있고, 선발로 시즌을 시작했던 임기영도 옆구리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지만 이들의 위기는 다른 이들에게 기회가 됐다.
황인준이 두차례 선발 등판을 한 뒤 전략적으로

2군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홍건희가 새로운 경쟁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14일 SK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시즌 첫 등판에 나선 홍건희는 6이닝 4피안타 3볼넷 4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선수들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KIA 마운드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복귀를 노리는 이들의 경쟁은 1:2군 모두에 '경쟁의 바람'을 키우고 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전천후 투수'로 주목을 받았던 사이드암 박준표가 경기 도중 다리에 공을 맞기는 했지만 지난 16일 KT전을 통해 실전에 돌입했다. 지난 시즌 '셋별'로 주목 받았던 유승철과 2017년 우승 주역인 김세현도 퓨처스리그에서 칼을 갈고 있다.
예상과는 다른 KIA의 초반 흐름 속 '경쟁의 바람'이 타석에 이어 마운드도 바꾸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PGA 입성 임성재 "목표는 챔피언십"

오늘부터 RBC 헤리티지 출전...올 신인왕 유력

올해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 입성한 임성재(21)는 투어에서 '무서운 신인'으로 통한다.
웹닷컴투어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를 거머쥐고 PGA투어에 올라온 그는 아직 우승은 없지만 톱 10에 다섯번이나 입상했고 181만7000달러의 상금을 쌓았다. 페덱스컵 랭킹 22위로 신인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임성재는 이번 시즌 PGA투어 신인왕이 유력하다.



PGA투어 RBC 헤리티지에 출전하는 임성재는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17일 대회 장소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 헤드 아일랜드의 하버타운 골프 링크스 연습장에서 "이번 시즌을 절반처럼 치렀는데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성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우승 한번은 하면 좋겠지만 진짜 목표는 투어챔피언십 출전"이라고 밝혔다.
시즌 마지막 대회 투어챔피언십은 플레이오프에서 진출하는 125명 가운데 마지막 남은 30명만 출전할 수 있다. 투어챔피언십에 출전한다면 그 시즌에는 최정상급 활약을 펼쳤다는 뜻이다.
그는 올해 마스터스는 출전 자격을 갖추지 못해 집에서 TV로 봐야만 했다.
임성재는 "나가면 좋긴 하다. 그러나 마스터스 출전에 연연하지는 않겠다"며 "마스터스에 출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가서 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실력을 갖추는 게 먼저"라고 언급했다.
시즌 첫 번째 메이저인 마스터스는 놓쳤지만 남은 3개 메이저대회에는 다 출전한다.
PGA챔피언십과 디오픈 출전 자격은 이미 굳혔고 US오픈은 대회 전까지 세계랭킹 60위 이내만 유지하면 된다. 현재 그는 세계랭킹 58위에 올라 있다.
전날 18홀 프로암에 이어 이날도 대선패 최경우(49)와 18홀 연습 라운드를 돈 임성재는 "체력은 썩었다"면서 "(마스터스 기간이던) 지난주 쉬었던 컨디션도 최상이라 이번 대회가 기대된다"며 주목을 끌곤 쥐어 보였다.
/연합뉴스

류현진, 다음주 돌아온다

불펜 피칭...재활 등판 없이 합류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짧은 재활'을 마치고 빅리그 복귀전을 준비한다.
마이네리코 재활 등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를 전망이다.
MLB닷컴 다저스 담당 기자 켄 거너,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의 빌 플링킷은 17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류현진의 복귀 시점을 전했다.
거너는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이

다음 주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다. 재활 등판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썼다.
플링킷은 류현진이 조금 더 일찍 선발 복귀전을 치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위터에 "류현진이 불펜피칭을 잘 마쳤다. 밀워키 브루어스와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적었다.
10일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Injured List-IL)에 오른 류현진은 문서상으로 20일부터 메이저리그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강정호, 침묵 깨고 '멀티 히트'

디트로이트전 시즌 2호 홈런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오랜 침묵을 깨고 시즌 2호 홈런을 작렬했다.
강정호는 17일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인디언스 경기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상대 6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1홈런) 2타점 2삼진을 기록했다.
시즌 첫 멀티히트를 기록한 강정호의 타율은 0.105에서 0.143(42타수 6안타)로 올랐다.
강정호는 2회 초 첫 타석부터 안타를 터트렸다.

8경기 만의 안타다. 강정호는 지난 6일 신시내티 레즈전 이후 7경기 연속 침묵했고, 15일 경기에는 결장했다.
기세를 몰아 강정호는 다음 타석에서 홈런을 날렸다. 강정호는 1-0으로 앞선 4회 초 1사 1루에서 디트로이트 선발투수 매슈 보이드의 초구를 잡아 당겨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터트렸다.
피츠버그는 연장 10회 초 스타팅팅 마르테의 2점 홈런으로 다시 앞섰고, 10회 말 추격을 막으면서 승리, 2연승을 달렸다.
/연합뉴스

추신수 강원 산불 돕기 1억원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한국인 타자 추신수(37)가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추신수의 소속사 갤럭시아SM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신수가 법정 재난-재해 구호단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추신수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하루빨리 강원도민들이 삶의 터전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